

기자가 되고자 하는 젊은 벗들에게

리영희



리영희 선생님은 1957년 합동통신 기자로 언론 활동을 시작하여 한겨레신문사 비상임이사 및 논설고문을 지냈다.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다 1995년 정년퇴임 후에는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저서로는 『전환시대의 논리』,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외 다수가 있다.

자본주의의 인간소외에서 벗어나야...

의학이 발달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70년 살기는 어려운 인생입니다. 하긴 그 시간 동안 놀다 죽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발 책 좀 읽고 토론하고 그러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만 한다던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지저분한, 오락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이룩할 것을 어느 정도 이룩해 놓고 그 때가서 편히 쉴 생각도 하고 그러세요.

내가 마치 구시대적인 늙은이의 이야기로 시작한 것 같은데, 내 의식과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여러분들보다 100년을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런 비인간적인 사회, 마치 썩은 물속에서 노는 물고기가 자신이 마시는 물이 썩은 줄도 모르고 마시면서 함께 썩어가는 것과 같은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향락하는 인생이 아닌 보다 더 높은 이상을 위해서 몸과 생명을 바치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다 더 높은 가치와 희망을 지향하며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돈과 향락만 알고, 감투나 쓰는 것을 성공으로 착각하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한 시대의 혁명가들, 한 시대의 종교적 순교자들, 소수의 예술적 헌신을 하는 사람들 또는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버릴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불꽃처럼 사는 인생을 지향하십시오. 텔레비전이 미국식 소비생활, 자본주의 소비생활을 보여주면서 물질적으로 흥청망청 쓰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대량파괴, 물질주의에 우리가 파묻혀 버린 꼴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전철역에 있는 서점도 아닌 조그마한 가게에서

여성 월간지를 찾아보는데 37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앉아서 몇 가지 잡지를 보니까 대부분 600~700페이지 분량인데 읽을 만한 페이지는 15페이지나 될까 말까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화장품 광고나 예뻐지게 한다며 바르고 꾸미는 걸로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비인간화하는 겁니까. 이게 남한 여성의 소비문화의 현실입니다. 여성문화만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남성들이 한심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제발 미국식 소비문화와 자본주의의 비인간화, 인간소외에서 벗어나세요. 인간이 보다 순수하고 정열적이고 애타적인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워낙 압도적인 물질적 소비문화에 몰들어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모두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 얘기는 시간의 중요함을 알고서 시간을 아껴서 책 읽고 공부하고 선인들이 남긴 고귀한 지적, 사상적, 정서적, 예술적 유산을 배우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1,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수십만의 대학 1, 2학년생들 중에서 자기를 향상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고 나와 있다는 데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일반적인 걱정이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나도 아주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등록한 이유가 언론분야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언론관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의 전공은 한반도의 남북관계와 군사관계, 한국-북한-미국간의 관계, 해방 후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소위 북핵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등의 딱딱한 문제들이 내가 50년 동안 연구해 온 문제입니다.

이런 주제들이 언론하고 관련이 없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에서 일하는 기자나 방송인들은 물론이고 글 쓰고 의견을 개진하는 지식인들의 활동이 모두 언론활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대학 교수들까지도 내가 지금 열거한 것 같은 우리 일상생활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과 진실을 규명한 지식인도 없고 언론인도 없습니다.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나의 연구 분야인 북방한계선이나 북핵문제 등에 대해서 진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닙니다. 마땅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진실과 사실을 찾아내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달했어야 할 지적 책임, 사회적 책임, 문화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광의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론이라는 것은 사회와 개인의 생활, 국가와 인류의 중요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찾아내고 알려주는 행위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는 권력자나 이익집단이 힘으로 억압하려고 한다면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자유를 바탕으로 언론기관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언론기관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헌법상의 특혜까지 포함해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 선배, 지식인들은 그런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북방한계선이란 무엇인가

우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 어선들의 내려옴과 그것을 퇴치하는 과정에서의 불상사에 대해 언론과 결부시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기대하는 정답을 100%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북방한계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흔하게 듣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냐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나 지식인들이 신문에 나와서 ‘북방한계선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겠지만 내 말은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북방한계선에 대해 이야기 해보라는 것입니다. 소위 엔엘엘 NLL(northern limit line)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들, 대학총장에서부터 교수, 국제법 학자, 군 전략가들, 언론에 종사하는 모두에게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큐만 있었다라도 북방한계선의 성격과 의의는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남한 국민들은 해방 후 오늘날까지 극우반공이라는 가장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이데올로기 반공주의로 말미암아 사고가 멎어 버렸습니다. 왜 초등학교 1학년 아이큐면 북한한계선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말 하나면,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체(비행기도 좋고 배도 좋고 바다 속에 기어가는 게라도 좋고, 이런 운동체)의 운동방향에 대해서 한계선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배, 어선, 구축함이든 뭐든 동서남북에서 움직이잖아요?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면 이런 운동체가 북쪽으로 가는 데 이 이상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어놓은 선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북한의 어선이나 북한의 잠수함 등이 남쪽으로 내려올 때 이 이상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

는 선이라면 논리학, 수사학, 언어학적으로 그 선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겠습니까? 남방한계선이라고 하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거짓말에 속아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 남한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고 인정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온갖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정직하고 너무도 순박하게 말입니다.

이것을 현실적 문제에 접근시켜 보면 북한의 어선이나 함정들이 남쪽을 향해서 내려온다면, 이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고 하는 선을 친다면 이것은 남방한계선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초등학교 1학년생의 아이큐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 나라 서울대 법대 학장에서부터, 실제로 나의 논문에 대해서 한심한 소리로 반박한 일이 있었지만 국제법 학자까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지도를 가져와서 여기 붙여 뒀습니다. 대청도, 어청도, 소청도이고 여기가 조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연평도입니다. 나눠 준 자료에 있는 지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연평도와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를 연결하는 소위 북방한계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남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선일까요? 이 선 아래로 북한의 배가 내려오면 총을 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 유엔군, 조선인민군, 그리고 중국 지원군 사령관 세 사람이 코리안 전쟁의 법적 당사자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리안 전쟁의 법적 당사자가 아닙니다.

코리아 전쟁과 정전협정

이유는 내가 나눠준 문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자가 많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6·25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보낸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모든 군사작전 지휘권을 귀하에게 넘기겠습니다’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미국이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남한 대통령으로부터 남한의 군대의 지휘권을 나에게 다 넘겨주겠다는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보고합니다’ 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한 글입니다.

이건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자진해서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내준 것이 아니라 미군 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젠 남한의 군대 작전지휘권을 나에게 내놓으시오. 그래야 전쟁을 단일 지휘체제로 수행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마치 이 글을 읽으면 이승만씨가 ‘제가 당신에게 작전지휘권을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걸 받은 쪽에서는 ‘당신 기특하게도 대한민국 작전 군대의 지휘권을 나에게 맡기겠다니 그럼 맡겠소’ 그런 식으로 해서 유엔 사무총장

〈韓國 陸海空軍指揮權移讓에 관하여 李大統領과 「맥아더」 유엔 軍總司令官間에 交換된 公翰〉

國際聯合 美國代表 「오스틴」씨가 「유엔」事務總長에게 傳達한 公翰 (1950년 7월 25일)

國際聯合 美國代表는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敬意를 표하여 오며 아울러 大韓民國 李承晚大統領과 「더글라스 맥아더」 將軍間에 交換된 下記 公翰에 관하여 安全保障理事會의 注意를喚起하도록 要請하는 榮光을 기지나이다.

〈李大統領이 「맥아더」 軍에게 보낸 公翰〉

大韓民國을 이한 國際聯合의 共同軍事努力에 있어 韓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作戰中인 國際聯合의 모든 部隊는 貴下의 統率下에 있으며, 또한 貴下는 그 最高司令官으로 任命되어 있음에 鑑하여 本人은 現 作戰狀態가 繼續되는 동안 一切의 指揮權을 移讓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입니다. 如斯한 指揮權은 貴下 自身 또는 貴下가 韓國內 또는 韓國近海에서 行使하도록 委任한 其他 司令官이 行使하여야 할 것입니다.

韓國軍은 貴下의 屬下에서 服務하는 것을 榮光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韓國國國民과 政府도 高名하고 譽용한 軍人으로서, 우리들의 事柄은 國土의 獨立과 保全에 대한 確切한 共產侵略을 對抗하기 爲하여, 힘을 합친 國際聯合의 모든 軍事權을 받고 있는 貴下의 全體의 指揮를 받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며 또한 謝意되는 바입니다. 貴下에게 深厚하고도 따뜻한 個人的인 敬意를 표하나이다.

1950년 7월 15일

李承晚

〈駐韓 美國大使를 통하여 李大統領에게 보낸 「맥아더」 元帥의 回翰〉

7월 15일 李 公翰에 의하여 李大統領이 取하신 指圖에 대하여 本官의 謝意와 衷心으로부터의 敬意를 표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韓國內에서 作戰中인 國際聯合軍의 統率力은 반드시 增強할 것입니다. 勇敢無雙한 大韓民國軍을 本官 指揮下에 두게 된 것을 榮光으로 생각하나이다. 李大統領의 本官에 대한 個人的인 讚辭에 대한 謝意와 그에 대하여 本官이 또한 가지고 있는 尊敬의 뜻도 아울러 傳達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우리들의 將來가 苦難하고 荒되도 모르겠으나 終局的인 結果는 반드시 勝利할 것이므로 失望하지 마시도록 그에게 傳言해 주시기 바라나이다.

1950년 7월 18일

맥 아 더

에게 ‘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료 지도 뒷장이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인데 맨 마지막 60 조 밑에 조인을 누가 했는지 보면 유엔군 사령관이 했습니다. 국제연합군 사령관인 미군 제8군 대장 마크 클라크하고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 원수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가 사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표가 왜 휴전 협정에 사인을 안 했을까요? 죽기는 제일 많이 죽고 우리 땅에서 전쟁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파괴되었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우리 땅에서 우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갔는데 휴전협정에 사인할 자격도 없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처음에 군사작전 지휘권을 미국에게 넘겼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는 법적 결말을 짓는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을 국제 법적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남북문제와 군사문제에서 무슨 문제가 날 때마다 북한은 미국에게 ‘한편하자, 회의하자, 협상하자, 정전협정대로 하자’ 그러면서 남한이 뭘 하려고 하면 ‘남한 정부는 비켜 있어’ 그러잖아요. 남한 정부나 애국적인 국민들은 ‘북한 놈들 나쁜 놈들, 미국 놈들 하구만 협상하자고 하고 우리는 왜 따돌림만 당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朝鮮軍事停戰에 관한 協定 중에서
第5條 附 則

61. 本 停戰協定에 대한 修正과 增補는 반드시 敵對 雙方司令官들의 相互合意를 거쳐야 한다.

62. 本 停戰協定의 各 條項은 雙方이 共同으로 接受하는 修正 및 增補 또는 雙方의 政治의 水準에서의 平和의 解決을 위한 適當한 協定中의 規定에 의하여 明確히 文書를 發할 때 때까지는 繼續 效力을 가진다.

63. 第12項을 除外한 本 停戰協定의 一切 規定은 1953年 7月 27日 22:00時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1953年 7月 27日 10:00時에 朝鮮板門店에서 英文, 朝鮮어 및 中國文으로서 作成한다. 이 세 가지 語의 各 協定本文은 同等한 效力을 가진다.

國際聯合軍總司令官	
美 國 陸 軍 大 將	마크. W. 클라크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	
(朝鮮 元 首)	金 日 成
中國人民志願軍司令官	
	彭 德 懷

參 席 者

國際聯合軍代表團 首席代表

美 國 陸 軍 中 將 윌리엄 K·허리슨 II世

朝鮮人民軍 및 中國人民志願軍代表團 首席代表

朝鮮人民軍大將 南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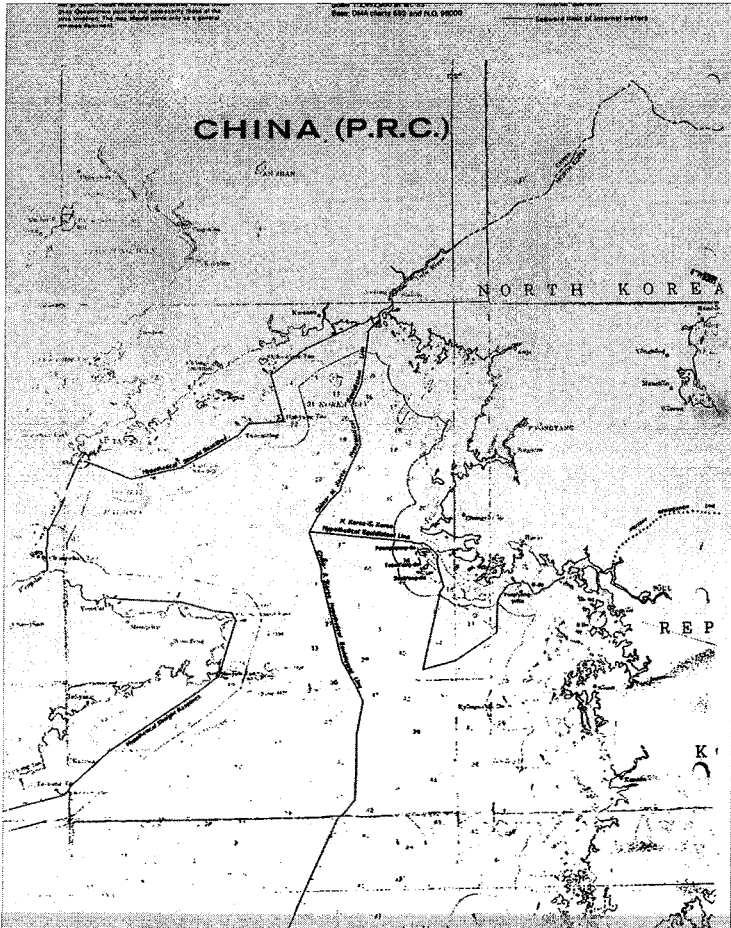
겁니다.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모든 군사문제는 1953년 7월 27일, 3년 2개월의 전쟁을 끝내면서 조인한 정전협정에 누가 도장을 찍었는가, 이것이 이후에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군사적인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린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작전지휘권을 모두 미군 사령관에게 쥐버렸기 때문에 3년 2개월 동안 전쟁하고 파괴되고 피와 생명 모든 것을 희생당했어도 정작 전쟁이 끝나고 무언가 문제가 야기될 때 회의를 열고 협상을 하고 가부간에 따질 자격은 없는 겁니다.

정전협정 제15조, 16조 내용을 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사인하는 그 순간에 군대가 있던, 남쪽과 북쪽에 군대가 있던 그 자리를 지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북한에는 해군이나 함정도 없고 바다와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전쟁수단도 없었습니다.

알만하잖아요.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 해안가의 섬들 모두를 남한의 해군과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15조에서 ‘협정 체결이 발효되는 이 순간에 모든 섬들은 1950년 6월 25일 현 상태로 돌아간다’, ‘1950년 6월 25일 속해 있던 국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현재 상태로 돌아간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어디를 점령하고 있었던 간에 유엔협정이 발효되는 그 시간부터 소속은 다시 1950년 6월 25일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3년 2개월의 전쟁이 끝난 뒤인 1953년 7월 27일 현재 코리아의 해안가에 섬이 많은데 전쟁이 나기 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북쪽에 올라가서 섬을 점령하고 있던 남쪽 군대는 섬을 내주고 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협정 내용을 보면 다만 서해안의 백령도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서해 5도, 이 섬 5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그 최종적인 섬의 영토적 소속이 결정되기까지는 지금 있는 상태로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 군대가 미국의 함정과 비행기의 보호를 받으며 점령하고 있었던 다른 섬들을 내놓고 휴전선 이남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5개



섬은 장차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까지, 모든 영토 문제가 최종적으로 판결날 때까지 현재의 상태로 유지한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관의 관할권 하에 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전협정 14, 15, 16조에서 영토의 문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휴전협정에 붙어 있는 지도를 확대한 것인데 여기가 5개의 섬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조선말로 써 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고 조선말로 말입니다. 왜 협정지도에 한국어가 아니고 조선어로 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지도에는 세 나라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맨 우측이 중국어, 가운데가 영어, 좌측이 조선어입니다. 왜 조선어 일까요? 전쟁의 주체는 실제로 남한이 주체라서 찢리고 죽고 도망하고 파괴되고 그랬지만 법적으로는 전쟁의 주체가 남한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제법상에 휴정협정을 체결할 때 남한이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한국어가 아니고 조선어로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전선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해서 대한민국의 법적 위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애국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데 사실 아무런 발언권이 없는 겁니다. 말조차 우리말이 아니고 조선어, 북한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 나라 말로 써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설명한 대로 5개의 섬을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엔군 사령관의 관할 하에 둔다, 그건 미군이 와서 주둔할 수도 있고, 영국군이 주둔할 수도 있고, 남한군이 주둔할 수 있지만 전쟁당사자인 유엔군 사령관의 관할권 하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14, 15, 16조에는 이 5개의 섬을 연결하는 어떠한 봉쇄선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개의 섬을 연결해서 임시적으로 유엔군 사령관 관할 하에 두지만 평화협정 맺을 때까

지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5개 섬을 남한과 연결해서 북한을 포위하는 어떠한 선도 그을 수 없다, 이렇게 휴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서 보면 5개의 섬들을 네모난 프레임 안에 넣고 그 안에서의 행정관리권은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유엔군 사령관이 행사하는 것이지, 남한 정부나 남한 군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임시적인 거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남한이 관리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북한을 포위할 수 있는, 봉쇄할 수 있는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나머지의 바다는 공해(公海)인 겁니다. 누구의 것도 아닌 공해 말입니다. 이북 것도 아니고 이남 것도 아닙니다. 북한을 포위하는 서해 5개 섬을 연결하는 어떠한 봉쇄선도 설정할 수 없다는 것, 이걸만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해입니다. 꽃게가 적던 뚝단, 여기는 우리 배도 가서 잡을 수 있고 북쪽의 배도 와서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연평도는 국제해양법에 의해 북한 영해 안에 들어 있었으니까 말이죠. 본래 휴전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야말로 올라가도 한참 더 올라가서 잡고 있는 겁니다. 북쪽은 자기 영해 안에서 잡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어요? 원래 여기에 선을 못 긋게 되어 있는데 5개의 섬을 연결해서 소위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그어가지고 소위 북쪽의 배를 못 내려오게끔 남쪽 해군, 공군이 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명백히 정전협정의 위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국심만 가지고 언론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반공법, 반공주의, 반복한 등 뭐든지 북한은 밟고 북한이 하는 건 안 되고 우리 쪽 주장대로 보도를 해야 하고 나라를 사랑하

는 마음에서 5개 섬을 연결한 선, 북방한계선을 우리 선이라고 주장해야 하고 비합리적, 비(非)법적, 비사실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언론에서나 언론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언론이라는 것은 진실에 입각해서 거짓을 밝혀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인가, 사실이 무엇인가, 무엇이든지 사실에 입각해서 가치판단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사실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북한 공산당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적행위가 되는 유치한 광적인 애국주의 사상과 감정에 입각해서 국제법이나 국제협약 그리고 엄연한 휴전협정을 부인해 버리는 건 언론의 사명도 아니고, 마땅한 자제도 아니고, 언론이 말아야 할 기능도 아닙니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오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세 번째 장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세요. 아직도 휴전협정이 살아 있으니까 5개의 섬이 유엔군 사령관 관찰하에 있다는 것을 북한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코리아 워(korean war). 한국전쟁이 아닙니다. 휴전협정에 의해서 법적, 조약적인 엄밀한 용어를 써야 한다면 한국전쟁도 아니고 조선전쟁도 아니고 국제법상 남북한을 다 합친 것이니까 코리아 워(korean war)라고 해야 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했는데 그리고 나서 평화협정을 체결 했나요 안 했나요? 전쟁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전쟁으로 일어났던 모든 피해와 변칙적인 사태를 정상화하는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을 정치회의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편도 오가고 이산가족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그런 행위의 하나인 것입니다. 파괴한 건물을 짓고 비행기가 오가고

통상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나 없나 등 이 모든 생활의 정상화를 규정하는 것이 평화협정조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50년 동안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휴전선이 지금도 있고 국가보안법이 있고 한총련 학생들이 다 잡혀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어집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북쪽은 여태까지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서해 5도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국민에게 평화가 오고 국가간의 문제도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그것을 지금까지 거부해 오고 있는 겁니다. 6·25전쟁의 결말을 평화적인 상태로 돌려놓는데 과연 북한이 방해해오고 거부해 온 것인가, 이걸 중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거부해 온 겁니다.

그걸 또 설명하려면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휴전협정을 인정해서, 5개의 섬을 유엔군 사령관 관리 하에 두고 거기에 드나드는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계속 주장했어요. 북방한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의 선이니까 없애버리고, 대신 경기도와 황해도의 중간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 그 이남은 자유롭게 남한 쪽에서 다니고 그 이북은 북쪽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으로 하자고 잠정적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아울러 연평도에 들어갈 수 있는 좌우로 2킬로미터씩 전체 폭 4킬로미터에 한해서 남한의 배가 드나 들 수 있도록, 또 백령도 쪽도 항해할 수 있는 선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북방한계선은 그런 선입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만 나면 대한민국의 영해를 침범했다며 흥분하

고, 그럴 때 소리높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언론이 애국신문이 되고 그렇습니다. 언론과 언론인의 사명은 냉철하게 역사적인 사실, 팩트(fact)로서의 사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 역지를 써서 뒤편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진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언론인이 가장 빠지기 쉬운 잘못된 애국심, 아주 흉악한 반공주의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야기는 내가 쓴 책 『반세기의 신화』를 보세요. 이 책을 왜 냈냐면 바로 4년 전에 서해에서 2차 해군 충돌이 났을 때 하도 엉터리 같은 소리를 신문 방송, 서울대학 법대 학장이라는 사람, 온갖 법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런 휴전협정 전후 안팎의 사실들은 모르고 그저 ‘우리 영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쓴 것이었는데 사실 한국에서 내가 처음이었습니다.

반공의 권위에서 벗어나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언론과 언론인은 언제나 머리를 냉철하게 하고 애국이니 반공이니 하는 따위는 제2, 제3의 가치이며 진실, 사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 일의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권위든, 즉 정부든 신문이든 법대 교수든 누가 무슨 주장을 해도 사실, 진실이 아닌 것은 거부하고 오로지 진실에 충성심을 받쳐야 합니다. 언론인에게 신(神)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실과 사실이라는 신입니다. 반공범도 아니고 애국심도 아니고 그 밖에 잡다한 그따위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잘못된 권위, 어떤 거짓을 말하거나 강요하거나 날조하고 조작하거나 정당화하는 등의 모든 행태들을

언론인은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제대로 된 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그래서 언론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영어지만 저널리스트, 그 말은 진실과 사실에만 충성을 다 받치고 목숨을 바치는 직업과 직업인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언론인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런 이상한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항상 어떤 권위, 즉 정부, 교수, 학자, 신문, 방송, 미국 등에 의해 발표되고 주장되는 것에 대해 진실인가 사실인가 되물어 봐야 합니다. 의심이라는 용어는 좋지 않지만 되묻는 마음가짐과 지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태까지 선불리 아무거나 다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그렇게 속아온 것입니다. 잘못된 반공적 권위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들이 마취의 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실에 대한 판단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진정 자유로운 이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사는 모든 생활환경에서 거짓을 거짓으로 알고, 진실을 진실로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종합된 진실의 환경 속에서만 언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성인으로서의 자유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에 반공주의의 물감을 쏟아 놓아 덧칠해 놓고는 판단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한다면 잘못된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뼈똥여진 의식에 반대, 해석하고 의심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가 진실인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인이라는 것은 의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 국무성이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지식

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To doubt is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이게 무슨 뜻이죠? “의심이야말로 지혜의 출발이다.” 의심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고, 그 지혜라는 것은 지식인, 지성인, 자유인, 자율적인 인간, 독립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사를 의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진실과 사실

여러분들이 미국이 얘기하는 이라크 전쟁이나 김동길이라는 웃기는 인간이 말하는 반공주의, 극우 반공주의자가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만든 거짓에 대해서 정말이야 하고 의심해보면 서해 5도 문제도 깨끗하게 눈앞에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나는 6·25전쟁 때 7년 동안 총탄 아래서 싸워 온 예비역 소령입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전쟁에서 7년 동안 복무하고 나올 때 예비역 소령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애국심에서 누구에게 뒤지겠습니까? 왜 내가 6·25전쟁에서 총탄을 쏘았겠습니까? 7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애국심을 가진 애국자는 크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입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정책 수립하고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당장은 불리하더라도 서해 5도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면 북한에서 꽃게 잡으러 5도 섬까지 자유롭게 내려오니까 극우 반동주의 세력들은 영토를 빼앗겼다고 야단이 나겠지요.

그러나 진실한 저널리스트는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일단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하고 그 다음의 문제해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고집하는 한, 애국이니 반공이니 반복한이니 그런 생각을 하는 한, 남북한의 영토전쟁은 언제나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몇 십 년 더 끌며 다투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진실에 입각해서 지금은 불리하지만 상대방하고 휴전협정이 지정한 대로 돌아가서 건설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찾아내는 것이 더 애국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언론인과 언론이 해야 하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을 다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하도 북방한계선이 우리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군대가 나가서 총을 쏘고 해전이 일어나니까 유엔군 측이 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말을 안 해주나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유엔본부나 유엔군 사령관이 ‘이건 남한의 선이다’ 이렇게 말해줄 줄 았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내가 『반세기의 신화』를 발표하니까 전국에서 수십 건의 국가보안법 고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다 압니다. 그런데 검찰, 경찰이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알겠지만 치밀하고 엄정하게 학문적인 논문으로서 쓴 겁니다. 서울법대 학장이라는 작자가 ‘우리 영토인데 북한이 영해를 침범했다’ 이따위 수작이나 하는 그런 엉터리가 아닙니다. 여태까지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다 내 논문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아직 한 번도 국가보안법에 끌려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마침내 지금 내가 설명한 것과 같은 선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무시하고 나포하고 총을 쏘고 그러고 있지요. 그럼 왜 이런 선을, 남한의 해군 선박이 이 이상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끔 했을까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고 들어 볼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1953년에 휴전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남한 정부가 휴전협정 체결하는 걸 강력 반대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2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선거공약이 뭐였냐 하면 휴전협정을 성립시키고 ‘코리아 워’에서 미군을 하루빨리 철수시킨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무더기 표를 받아서 당선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협정을 밀고 나가려고 했고 북한도 전쟁을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2년 동안의 긴 협상 끝에 휴전협정이 체결되려고 하니까, 즉 전쟁이 끝나려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깨부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나는 그 때 강원도 금병산 위에 있는 향로봉 꼭대기에서 있었는데 겨울이면 영하 20도였습니다. 군인이 오줌을 싸면 그대로 땅에 얼어붙습니다. 그런 영하 20도의 전선에서 살고 있는데 뒤에서 이승만이나 극우반공주의자, 이른바 애국주의자들이 ‘전쟁을 계속해서 북한을 군사통일하자’고 데모하고 그럴 때 나는 눈에서 불이 났습니다. 군대에 와서 고귀한 청년들이, 우리 부대만 하더라도 하루에도 몇 십 명 몇 백 명씩 죽어 가는데 후방에서는 돈 있는 놈들, 뺨 있는 놈들이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온갖 지랄들을 하면서 말로는 전쟁을 계속하자 그러는데 ‘그럼, 니들이 와서 전쟁을 해봐라’ 이런 생각이 들던 그런 때였습니다.

코리아 워에 관해 미국 대통령이 결제한 극비문서가 책으로 7권이 있습니다. 한 권이 2천 페이지씩 됩니다. 그 안에는 문서, 전보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휴전협정과 관련된 앞 뒤 전후사정

에 관련된 극비문서가 3권으로 한 5천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걸 다 읽어본 사람도 한국에는 없지만 그걸 읽어 보면 미국은 전쟁을 끝내려고 휴전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승만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런 짓을 못하게 하고 빨리 협정 체결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는 해군 함정이 아무 것도 없고 모든 섬은 남한이 유엔군 해군의 보호 하에 가서 점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휴전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한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소를 끌고 내려오는 등의 공격들과 군사행동을 계속했던 말입니다. 황해도 휴전선 이북에서 말입니다.

미국은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짓 하면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승만은 거꾸로 생각을 했지요. 우리가 공격을 하면 북한 인민군이 다시 반격을 하고 그럼 서로 공격을 해서 전투가 커지게 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나 미국이 아무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자연히 또 말려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다 계산을 하고 미국이 아무리 도발하지 말라 침공하지 말라 해도 계속 황해도를, 지금 연평도 위 황해도를 공격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관을 시켜서 최종 결단을 내립니다. 이승만 한국 대통령을 체포 구금 하라,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해체하고 유엔군 사령관이 군정을 실시하라, 일체의 전쟁을 계속하려는 따위의 세력과 단체를 전부 해체하고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라, 그렇게 하고 한국군에게 휘발유와 탄환을 전부 제한 공급해 버리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휘발유 없으면 차 한 대 움직일 수 있나요? 한국군이 미국 아니면

휘발유 어디서 구합니까? 미국이 안 주면 올라가서 소가 아니라
강아지도 쓸 탄환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유엔군에 의한 쿠데
타를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당시 한국 육군총참모장이 백선엽 대
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쿠데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물론 상상도 못 해 봤지요?

이렇게 해서 휴전협정에 겨우 이승만이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보호하는 조약을 맺어 주시오, 이승
만이 그렇게 요구해서 할 수 없이 아이젠하워가 앞으로 무슨
사태가 있으면 보호해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한미방위조
약입니다. 한미방위조약이 그렇게 해서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5도 소위 북방한계선 상에서 남북한 함정들
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유엔군 사령본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안
주고 북한에 대한 비난도 안 한 겁니다. 엄연히 휴전협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북한에서 유엔군 사령부에게 제대
로 태도를 밝히라고 자꾸 압력을 넣으니까 드디어 내가 아까 설명
한 그런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남한의 해군이 북한에 올라가서
전쟁을 일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한의 해군이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선을 유엔군 사령부에서 그어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한 뜻을 알겠습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 선은 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남한 함정이 더 북쪽으로
가서 그런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게, 남한 해군과 공군이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유엔군 사령부가 내부규정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의 성격과 모든 효과

와 법적 성질이 분명해졌죠?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 안 했느냐 하면 휴전협정이 이루어진 후 1970년대까지는 북한에 해군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의사를 밝히며 '이것은 없는 선이야, 우리가 왜 못 내려가' 하면서 밀고 내려올 수 있는 해군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그마하지만 함정이 생기고 그래서 가끔 이 선이 무효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즉 시효가 굳어지기 전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불법적인 선도 상대방이 오래 동안 아무 소리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제법상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 민법도 내가 남의 재산, 금덩이를 슬쩍 가져다가 집에 갔다 왔는데 상대방이 아무 소리 없이 20년, 장물판계의 경우에는 아마 10년일 텐데, 상대방이 알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면 또는 심지어 몰랐다고 해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선취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북한은 우선 해군 함정이 없어서 무력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래서 조그마한 해군 함정이라도 생겼을 때부터 일 년에도 몇 번씩 일단 내려왔다 올라가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선취권에 대한 시효가 성립되지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서로 돈을 찌주었을 때 안 주는 경우에는 계속 '왜 안 줘' 하며 법적으로 법원에 청구해서 '돈을 안 줍니다 찾아주세요' 해야 합니다. 또 2, 3년 있다가 안 주면 '안 줍니다' 하고 법적으로 의사표시를 꾸준히 해야 하고, 어느 기간 동안을 두고 되풀이 하면 그러는 동안은 내 돈이라는 효과가 계속되는 겁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지금 북쪽은 배를 가끔가끔

내려 보내 이 선이 법적으로 무효라는 시위를 하는 겁니다. 시효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 어선이나 함정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쫓게 잡으러 내려오는 것이지만요.

지난번에 2차 교전 때 우리나라 어선들이, 일설에 의하면 이백척이라고 부풀려지기도 하는데, 우리 어선 수십 척이 북방한계선을 더 넘어가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쫓아 내려왔다고 MBC가 사실대로 보도하니까 반공애국주의자들이 MBC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미국의 1994년 북미핵협정 위반 문제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핵문제입니다. 소위 그 문제를 뭐라고 말하지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치 지금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듯이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문이나 라디오나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 무슨 ‘트럭사고’ 또는 ‘연애사건’이라든가 무슨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북핵 문제’라고 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저널리스트가 된다는 여러분들은 이 말, 말의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서 창세기 편을 보면 지금 폐허가 되어 버린 이라크의 바그다드 주변 가까운 곳에 소위 탑을 지어서 인간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무슨 탑이죠? 바벨탑이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탑을 90미터 높이까지 지었는데 흙을 이겨 벽돌을 만들고 90미터까지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걸 기독교 얘기니까 그 다음의 이야기는 우화겠지만 인간들이 그 당시에 건방지다고 오만해지고 시건방져가지고 ‘하느님이 있으면 뭐 어때? 우리도 한

번 올라가 보자' 이런 오만한 마음을 품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한 90미터 쌓으면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하느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얘기 해봐요.

학생 :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인종이고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두 흠어지게 하고 상대의 언어를 못 알아 듣게 수백 가지 언어를 만들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질서 있는 안정된 생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언어, 말, 낱말이 분명한 개념과 관념으로 제대로 된 명칭과 이름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사각형이라고 하면 자네들이 '아, 사각형! 네모로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혼란스러운 말로 개념을 표현하고 혼란스러운 언어로 묘사를 한다면, 내가 '흰 눈'을 생각하면서 표현할 때는 '검은 떡'이라고 한다면 저쪽 사람은 내말을 듣고 '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숯덩이'라든가 '검은 떡'을 생각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질서 있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어 왔던 인간생활은 만사에 쟁명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느님이 '이 패썹한 놈들 인간이 내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면서 기어 올라오는데 인간들을 어떻게 해줄까' 해서 생각해 낸 것이 인간들의 말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혼란스러워 진다는 것은 내용, 관계, 현상, 성질, 개념, 관념, 사실들을 표현하는 워드(word), 익스프레션(expression)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글와글 기어 올라오는 오만볼손해진 인간들이 서로 무슨 소리하는지 모르니까 올라

가라고 하면 내려가고 내려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그래서 인간들이 멸망했다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말, 사실, 어떤 관계, 현상, 관념 등을 얼마나 정확하게, 100% 표현될 수 있는 말로, 익스프레션(expression), 워드(word)로 기사를 쓰느냐 하는 것이 언론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박정희, 전두환 같은 인간들을 세종대왕 이후의 성군, 명군이라고 그리고 악질 군사정권을 놓고 민주주의 어찌구 저찌구 그러고, 지난 50년 동안에 한국 언론이 해 온 짓이 이렇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보고 ‘대단해’ 이런 식으로 떠받들어 왔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뭘 어떻게 해왔는지 알아요? 왜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이, 민주주의 운동에서 피 흘리고 싸운 젊은이들이 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반대하는지 알아요? 바로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전두환의 광주학살 사건에 맞선 광주항쟁을 폭도들의 짓이라고 하고, ‘계엄군이 잘 진압해 감사합니다’ 라고 실제로 조선일보 사설로 썼습니다. 이따위 것들이 수천만 가지입니다. 그 시대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 하는 말, 표현이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재정권은 독재체제라고 써야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잖아요. 전두환 이 사람은 살인마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소위 언론, 언론인이라는 작자들이 권력에 아부하고 돈 얻어먹고 감투 쓰기 위해서 바빌론의 탑에 올라간 인간 같은 온갖 짓거리를 한 겁니다. 날조한, 엉뚱한 말과 표현으로 거짓말들을 일삼아 왔습니다.

공자님에게 자로(子路)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공자의 『논어』는 전부 제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로가 어느 날 “선생님께서서는 제나라에 초대받아서 재상이

되시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맨 처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국민총선을 실시하고 특검제를 실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말을 바로 쓰게끔 하지” 그랬습니다. 정언(正言). 말씀 언, 바로 쓴다 바로 잡는다 정, 그래서 ‘정언론’(正言論)이라고 합니다. 정언에 관한 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다시 “정치를 바로잡는 데 무엇을 하시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말을 바로 잡는 거 하고 정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공자님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구나”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빌론의 혼란과 같은 겁니다. 정치가 혼란한 것은 백성들이 또는 정치하는 재상이나 임금이 현상, 관계, 사실을 사실이 아닌 다른 걸로,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말을 소라고 하고 불효자를 효자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떤 개념, 사실, 존재, 관념 전체가 정확하게 말과 글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말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실과 옳고 그름의 말을 바로 하면 모든 혼란은 저절로 바로 잡혀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언론’이라고 합니다.

저널리스트야말로 이 사회의 혼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해방 후 50년 동안에 친일파를 친일파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민족반역자를 민족반역자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애국자로 쓰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온갖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진실된 핵심과 성질을 그대로 표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이 명료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바빌론의 우화하고 공자의 ‘정언론’을 염두에 두고 앞으

로 저널리스트를 지망하는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도 생각하면서 써야 됩니다.

어떠한 형태를 100% 완벽하게 표현하는 낱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외는 뭔가 조금씩 틀립니다. 현상, 관계, 성질 등을 지극히 정확하게 표현하는 낱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현실은 우리 언어학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일 가까운 한 마디가 있습니다. 한 문장에 같은 말이 되풀이해 몇 번씩 나오고 동일한 사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함부로 글을 쓰는 것은 바로 그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널리스트, 언론인을 지향하는 여러분은 말이라는 것이, 표현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썩고 부패하고 타락한 권력자들이 자기 혼자 잘 먹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이태리제로 자기의 키보다 더 높은 강철금고를 사다 놓았고, 노태우 같은 자는 나올 때 4천억이나 들고 나왔습니다. 박정희 같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모크라시(Democracy), 말 그대로 민주화된 문민의 정부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는 과거에 낱말을 제대로 안 쓴 혼란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자들을 장관시키고 국회의원 시키고 대통령을 시켰습니다. 일본 군대에 가서 일본 천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일본 천왕이 준 칼을 받아가지고 와서 대통령이 되는 이런 나라에서 언론은 그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올바르게 낱말을 쓰지 못한 탓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구요. 우리에게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가를 알 수 있겠죠?

나뉜 자료를 보면 연표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주한미군 자체

자료집에서 나온 것인데, 여기 휴전협정을 보면 ‘휴전협정이 체결될 그 당시 무기의 수준에서 밖에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포는 대포, 탱크는 탱크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 그 종류와 그 질의 무기로만 낡은 것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중거리 미사일 핵탄두, 핵폭탄을 러시아와 협정을 해서 철수하기로 했는데 그때야 비로소 ‘미국의 핵폭탄을 남한에서 철거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국의 언론은 미국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어떤 속임수를 썼냐면 ‘한반도에는 미국의 핵폭탄이 없다’ 이렇게 80년까지는 없다는 것을 내세우고, 80년 이후부터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다고 하지도 않고 없다고 하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 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핵무기를 철수하라, 왜 핵무기가 있느냐, 핵폭탄은 휴전협정에서 분명히 못 들여오게 되어 있는데 왜 들어왔느냐, 우리는 소련이나 중국의 핵폭탄이 없다’ 그랬지요.

이러한 내용이 휴전협정 제13조 D항을 보면 비행기, 장갑차, 탄약, 이런 무기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고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1대 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이들을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즉 낡은 100밀리 포를 새 100밀리 포로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에서는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걸 들여오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들여다 놓고서는 안 들여 왔다고 그러면서 91년까지 미국이 사기를 쳐 온 겁니다. 그러나 소련하고의 협정에 의해서 91년에 핵무기를 철수한 겁니다. 한국의 신문, 언론이나 기자들이 미국이 발표하는 대로 없다고 하니 까 진실을 규명할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겁니다. 나는 이미 그전부터

670개가 있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종류에 따라 500개 일 때도 있고요. 언제 한반도에 핵폭탄이 들어왔냐면 전쟁이 끝나나마자 몇 년 후에 들어왔습니다. 엄연히 휴전협정이 그렇게 살아있는데 들여다 놓고는 없다고 그런 겁니다.

맨 처음은 1956년, 전쟁이 1953년 7월에 끝났으니까 3년 후인 1956년 8월 10일에 휴전협정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레드포드 미 합참본부 의장이 한국의 신무기 도입을 발표합니다. 신무기는 핵무기를 말하는 거지요. 1957년엔 신무기 공급을 고려중이라 언명하고 6월 30일 정식 통보하고 나서 휴전협정 제 13조 D항을 폐지한다고 북한 측에 통보를 합니다. 13조 D항이 신무기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폐기시키고 저항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핵무기를 40년 동안 들여 놓은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나와라, 언제 우리에게 쓸지 모르는 핵무기 철수하라, 휴전협정 위반이다' 그랬습니다. 미국은 계속 없다고 하다 90년대 와서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고 한국 신문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핵문제 위기는 미국이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아닙니다. 핵전쟁의 위협은 미국이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뒷장 자료를 바로 보면 1994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체결한 소위 핵 협정이라는 것의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그 시간표에 따라서 미국은 경수로형 원자로 2개를 완전하게 건설해서 2003년 바로 이 시기에는 2개를 북한에게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흑연감소 원자로 2개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수로형 원자로를 건설해서 딱 넘겨주기로 한 시점이 지금 2003년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건설되었냐면 해마다 지연시켜 오다가 거의 3년 전에 모양만 갖추면서 바닥에 콘크리트만 해 놨습니다. 20% 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 다 만들어서 넘겨줘야 하는데 반에 반도 안 되었습니다. 경제봉쇄, 무역자유 또는 동결된 금융예금의 해제 이런 것들도 서로 일년이 지날 때는 뭐를 어디까지 하고 또 일년이 지날 때는 뭐를 어디까지 하고 해야 하는데 전혀 아무 진전도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은 흑연감소형 원자로 2대를 폐쇄해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발전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기도 발전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기름을 연간 50만 톤 제공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미국이 안 주는 바람에 지금 북한은 공장도 못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세우는 구실이니 근거니 하는 것들은 꼭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 거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처음에는 프랑스하고 독일도 반대하다가 얼마 전 에비앙회담 보니까 웃으면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중국은 미국에 감히 정면으로 말을 못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북한은 미국이 1994년 10월 24일 체결된 이 협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린 준수하지 않았느냐, 미국이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전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원자로에 있는 8,000개의 핵 연료봉을 다시 열어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반도에 조성이 되는 전쟁 위기는 북핵문제가 아닙니다. 언어, 언어를 엄밀하게 쓰라는 것에 대해 내가 강조했었지요. 북핵문제라는 것은 미국이 그렇게 짧게 문장을 만들어주니까 신문이나 방송에서 제목으로 북, 핵, 문, 제 네 글자고 편리하니까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진실에서 먼 것입니까?

진실은 말이 좀 길지만 ‘미국의 1994년 북미 핵협정 위반 문제’ 이것입니다. 좀 길고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 무엇이 한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위기의 원인이고 내용인지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 핵 협정에 대한 미국의 불이행 문제,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분쟁 이렇게 해야죠. 사실 내용이 그런 것이고요. 간단하고 좋으니까, 저널리스트하니까 북핵문제라고 쓰지만 진실은 뭐냐, 말, ‘정언론’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만하겠습니다.

정언론에 충실한 저널리스트가 되기를...

아마 내가 이야기한 내용을 처음 들었을 테고 놀랐을 테고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되세요. 사실 참 좋은 직업입니다. 대학교수보다 더 좋습니다. 진짜 저널리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뇌물이나 얻어먹고 틈새틈에서 위스키나 먹는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론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주권독립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국가입니다. 한미방위협정에 의해 대한민국의 땅과 하늘과 바다는 무조건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미국에게 군사적인 것을 양도했습니다. 권리를 쥐버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지금 전투용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청와대에 우리 미군사령관이 들어가 있어야겠어’ 그러면 비워줘야 됩니다. 왜냐면 한미방위조약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그 영토와 영해와 영공을 무제한으로 미국의 군사적 용도를 위해서 제공, 렌트(rent)한다고

적혀있는데 이걸 공짜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후반부는 미국은 그런 소리는 안 썼지만 마지못해, 싫지만 그런 뜻으로, ‘한국의 청을 수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독립주권 국가의 3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상식 아닙니까? 영토, 인민, 행정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토는 군사적으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게 줘 버렸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정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여학생들이 탱크에 깔려 죽어서 재판하자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는 재판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군을 체포할 권리가 있는 줄 압니까? 주권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에 대해 이의제기는 우리 정부에게 해야 됩니다. ‘왜 이 모양이냐 아직도, 몇 십 년이 지났는데 왜 이 모양이냐, 고치란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그럼 미군이 간다고요. 그럼 대통령 이하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길에 나와서 ‘제발 가지 말아요, 미군 가면 우린 죽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지난 50년 사이에 이 한국의 국민들은 전부 정신적인 불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전쟁을 할 아무런 힘도 없어요.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이 자꾸 원자탄 만든다고 하며 일부러 긴장상태를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을 재무장 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군사국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위험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또 그래야 남한 국민이 미국이 화나서 가겠다고 하면 ‘달라는 대로 다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땅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판국에 어떻게 여학생들을 깔려 죽인 미군을 재판하자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소리가 나오기만 하면 김동길이 하고 극우 반공기독교 세력들이 시칭 앞에

나와서 '미군이 없으면 우린 죽는다'고 하는데 왜 죽죠? 미군이 없어 서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무능력자로 만든 겁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사이에 미군 없어도 전쟁 안 일어납니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평화 협정 체결하고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축소해서 공업도 일으켜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기에 군사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26배입니다. 알아요? 경제력이 26배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미국에게 대드는 거랑 마찬가지로인 겁니다. 그런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있겠어요?

전쟁 위기는 미국이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극우 반공주의자들, 미국 숭배자들은 미국인들보다 더 미국의 애국자들입니다. 미국을 사랑하는 이 세력들에게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미국을 욕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무슨 아름다운 말을 해도, 특히 부시정권은 흉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고분고분 아첨하면 들어줄 줄 알아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주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우선 정신 차리고, 사실을 알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책을 읽어 보십시오. 다른 책에는 없어요. 내가 무슨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다섯 번 형무소 갔다 온 겁니다. 괜히 이런 지식이 나오고 이런 확신이 나오는 줄 압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좋은 저널리스트가 되어서 정언론에 입각해서,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쓰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줘서 감사합니다.